고흥군, '낭만캠핑 페스티벌' 안전 점검 실시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안전하고 낭만 가득한 페스티벌 준비



고흥군이 '낭만캠핑 페스티벌'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고흥만 수변노을공원에서 진행되는 '낭만캠핑 페스티벌'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6일 행사장 일원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고흥군을 비롯해 고흥경찰서, 고흥소방서,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소방·교통·전기·안전·시설 등 총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을 면밀히 살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폭죽 및 불꽃놀이에 따른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등 소방시설 확보 여부 ▲해안가 안전관리 대책 및 추락 방지 조치 ▲체험 프로그램 부스 등 임시 가설물의 설치 및 고정 상태 ▲행사장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교통관리 대책 등이다. 한편 '낭만캠핑 페스티벌'은 오는 7일 개최되며, 보물지도 탐험, 연 만들기, 장작 높이 쌓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캠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유빈 기자

보성군, 박미선과 함께하는 힐링 토크

보성군이 오는 20일 오후 2시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방송인 박미선을 초청해 제385회 보성자치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빛나는 오후를 위한 쉼표, 나를 돌보는 여정'을 주제로, 군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보성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으로 무료입장할 수 있다. 방송인 박미선 씨는 자신의 삶과 방송 활동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의 고민과 인간관계, 삶을 대하는 태도 등을 특유의 재치와 솔직한 화법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가족과 직장 등에서 쌓인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휴식과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마음껏 웃고 공감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윤성 기자

해남군'천연 미네랄 가득' 세발나물 본격 출하

해남군이 주최하는 해남미남축제가 지난 30일 삼산면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개막한 가운데, 첫날부터 7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으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올해 축제는 '해남쌀'을 주제로 전시와 체험, 판매, 라이브커머스를 연계해 해남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 판로 확대에도 힘을 보탰다. 첫날 해남쌀 라이브커머스에서 7,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푸드관과 주전부리관에서도 7,000만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축제장에서는 미남푸드관과 주전부리관을 비롯해 쌀 활용 요리체험, 김치 만들기, 고구마 캐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축제는 11월 1일까지 이어지며, 낭만콘서트와 청년축제, 인기 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해 해남의 맛과 멋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종옥 기자

삼군산악회, 진도군에 고향 사랑기부금 천만원 전달

진도·해남·완도 삼군산악회 회원들이 고향 진도의 발전을 응원하며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삼군산악회는 진도·해남·완도 출신 재경향우들이 함께하는 모임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진도를 방문해 회원 간 화합을 다지고 고향에 대한 애정을 나눴다.

7일 지산면 길은푸르미체험관에서 열린 방문 행사에서 이형식 삼군산악회장이 600만 원, 김성주 진도회장이 200만 원, 박일자 여성회장이 100만 원, 이석현 진도서초 총동문회장이 1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회원 4명이 총 1,0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진도군에 전달했다.

한편 진도군 고향사랑기부제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올해 11월 기준 누적 모금액 20억 원을 달성했다. /이가영 기자

장흥군, '파밤나방' 생육 초기 예찰하고 방제하세요

장흥군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장흥군 일부 마늘 재배지역에서 파밤나방 유충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마늘 재배농가의 철저한 예찰과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파밤나방은 마늘, 양파, 파, 고추 등 여러 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유충이 마늘 잎을 갉아먹어 잎에 작은 흰색 식흔이나 불규칙한 구멍을 만든다. 피해가 심할 경우 잎이 마르고 광합성 능력이 떨어져 마늘의 생육과 구 비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어린 유충은 잎 뒷면이나 잎이 겹치는 부분에 숨어 피해 초기에는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며, 유충이 성장하면 주변 포장으로 빠르게 이동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농가는 마늘 잎의 앞·뒷면과 잎집 안쪽을 꼼꼼히 살피고, 잎에 나타나는 식흔과 배설물, 유충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김정근 기자

완도해경, 테트라포드 추락자 신속·안전 이송

관계기관 공조로 응급환자 육상 의료기관 연계



완도해경 구급요원 응급환자 상태파악 및 읍급조치 모습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태환)는 7일 오전 전남 완도군 생일도 용출항 인근 해상에서 테트라포드 아래로 추락한 50대 여성을 육지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경 A씨(57세·여)는 생일도 용출항 방파제에서 낚시 구경을 하던 중 미끄러져 테트라포드 아래로 추락했으며, 오전 11시경 119를 경유해 완도해경에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완도해경은 즉시 인근 민간어선에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구조대 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A씨는 119생일구급대원 의해 구조됐으며, 이후 출동한 해경 구조정에 보호자와 함께 이송되었다.

당시 A씨는 의식은 있었으나 머리에 상당한 출혈이 있어, 완도해경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에 주력했다.

특히 생일도는 육지와 다리로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으로, 응급환자를 육상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위해서는 해상이송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해경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이송을 진행했으며, 오전 11시 54분경 당목항에 도착해 육상 응급의료체계로 연계했다.

송규하 완도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은 "낚시객과 관광객들은 테트라포드 출입을 자제하고, 방파제 등 해안가 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과 안전수칙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가영 기자

